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47 호

2021 년 4 월 15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반기문 ESG 아카데미> 참여 안내
2. BIS Summit 2021 결과 공유 (3/26)
3. BIS 헬스케어 반부패 세미나 결과 공유 (3/26)

■ 본부 소식

1. UNGC, 2021 전략 발표
2. UNGC 산다 오잠보 사무총장,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성명
3. UNGC 2021 리더스 서밋 참여 안내

■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한국무역보험공사
2. [SDGs 솔루션] 유기농 아동복 대여 서비스

■ UNGC 회원 뉴스

1. LG 화학, 세계 최초 플라스틱 순환 생태계 구축...ESG 모델 만든다
2. CJ 제일제당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출범...ESG 경영 강화
3. 한국거래소, 韓기업 '지배구조 투명공개' 확산 유도
4. 가스공사, 친환경 수소 에너지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반기문 ESG 아카데미> 참여 안내



체계적인 ESG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신 ESG 국내외 동향 및 인식 제고,
기업의 ESG 대응 현황 공유 및 전략 수립을 통해 ESG 내재화 추진 지원

수료증 발급

반기문 재단,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연세대학교 3자 공동명의 수료증(Certificate) 발급

프로그램 계획

시작 일시: 2021년 5월 4일 화요일 6:30pm
강좌 구성: 12주 강좌, 매주 화요일(6:30-9:30pm)
대상: 기업별 3인까지 등록 가능(임원 1명, 실무자 2명)
수강료: 750만원/600만원 (UNGC 회원사는 20% 감액)

신청 및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02-749-2149/50, gckorea@globalcompact.kr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Day 1: Kick off 및 프로그램 브리핑 (만찬)	1.1 반기문 총장과의 대화 (1h) 1.2 ESG 경영의 과제와 대응 (1h)
Day 2: ESG의 주류화와 기업 대응	2.1 PRI와 ESG 투자 (1.5h) 2.2 기업 지속가능성 주요 이니셔티브와 기업 대응 (1.5h)
Day 3: Environment	3.1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 및 기후금융 (1.5h) 3.2 기후금융 기반 해외 ESG 투자 사례 (1.5h)
Day 4: Environment	4.1 주요 환경 이니셔티브와 기업의 기후행동 (1.5h) 4.2 유럽의 Green Investment와 시사점 (1.5h)
Day 5: Environment	5.1 국내 녹색정책 및 과제 (1h) 5.2 참여기업 사례 및 토론 (2h)
Day 6: Social	6.1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활동 (1.5h) 6.2 국내외 기업과 인권 법제화 동향 (1.5h)
Day 7: Social	7.1 기업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 및 여성역량강화 (1.5h) 7.2 젠더 관점 투자 확대 및 기업 대응 (1.5h)
Day 8: Social	8.1 임팩트 투자 동향 및 금후 시사점 (1h) 8.2 참여기업사례 및 토론 (2h)
Day 9: Governance	9.1 ESG와 기업지배구조 (1.5h) 9.2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과제 (1.5h)
Day 10: Governance	10.1 국내외 기업 반부패 동향 및 기업 투명성 제고 (1.5h) 10.2 공급망 ESG 대응 우수사례 (1.5h)
Day 11: ESG Measurement & Index (Panel Discussion)	11.1 ESG 성과 측정, 공시 및 평가 (1h) 11.2 ESG 성과 지표 표준화 논의 및 쟁점 (2h)
Day 12: Wrap-up 및 수료식 (만찬)	12.1 인문학 강의: 지속가능한 사회 (1h) 12.2 아카데미를 마치며 (0.5h)

* Day 1, Day 12 외, 온라인 진행 예정



자세히 보기

2. BIS Summit 2021 결과 공유 (3/26)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3월 26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BIS 서밋 2021>을 개최하고, 8개 반부패 우수기업/기관을 시상하는 한편, 70여 기업이 함께 반부패를 서약하는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BIS(Business Integrity Society, 비즈니스 청렴성 소사이어티) 서밋은 기업 반부패 지형의 변화를 파악하고, 국내외 기업 반부패 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은 본 서밋에 참여한 회원사들을 환영하며 “준법윤리경영이 확대됨에 따라,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새로운 위험환경에 노출되게 됐다” 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 기업의 개별적인 노력을 포함하여 기업과 연관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청렴한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 서밋을 계기로 내외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는 밝은 측면과 재벌경제와 포퓰리즘, ‘부 쏠림’ 현상이라는 어두운 측면의 양면성”을 언급하며, “BIS Summit이 이러한 이중 구조를 해결하는데 공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도 BIS 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 극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지멘스 럼추콩 (Lum ChewKong)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BIS 프로젝트의 지난 성과를 축하하며 “BIS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영향이 일시적인 운동이 아닌 향후 한국 기업들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의 일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에 기반한 ESG 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중요

요소이며 윤리경영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강조하며, “반부패를 위해 동맹을 구축하고 함께 일하는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청렴해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조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첫번째 기조연설자는 반기문 제 8 대 유엔사무총장 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이었습니다. 먼저 반부패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8 개 기업과 반부패 서약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감사와 독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SDGs 16 번 목표가 없으면, 다른 SDGs 목표는 무의미하다” 며, “팬데믹에서 벗어나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UNGC 한국협회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과 정부의 지도력, 주체 의식이 필요하다. ‘정의로우 사회’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기조연설자인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은 반부패는 전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청렴수준 제고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언급하며, 반부패 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부문의 투명성 제고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략기획위원장 김숙 전 주유엔한국대사는 “청렴과 반부패는 우리 국가 사회의 기본 가치인 ‘헌법 정신’의 기저를 이루는 주요 가치인 동시에 사회와 국가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라고 말하며 “특히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 이슈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민, 정치, 언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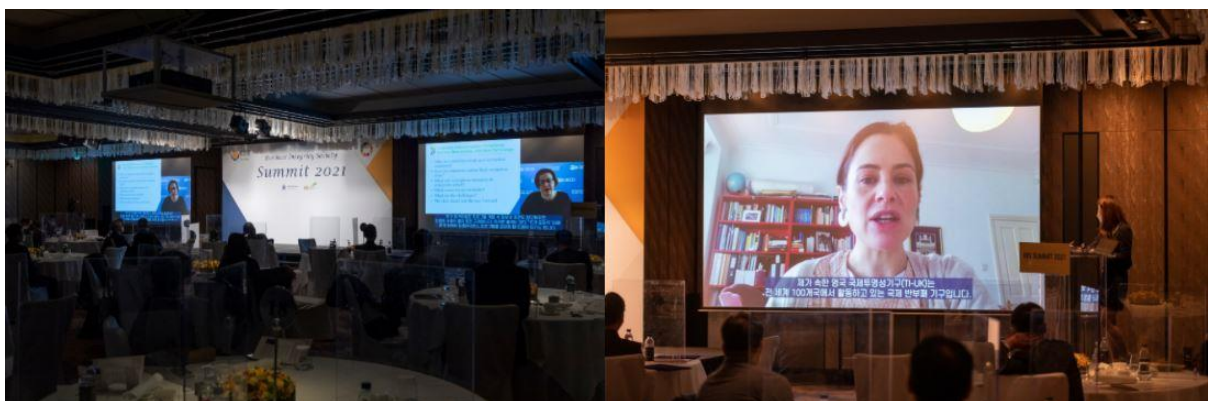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이번 BIS Summit 의 하이라이트인 반부패 서약식이 이어졌습니다. 70 여 기업 및 기관이 BIS 의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취지와 활동에 공감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 ESG 에 기반한 기업/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현장에는 25 개 기업 및 기관이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전체 서약 참여 기업 및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COWAY △GS 칼텍스 △IBK 기업은행 △KB 금융그룹 △LG 생활건강 △LG 전자 △LS ELECTRIC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NH 투자증권 △NS 홈쇼핑 △POSCO 인터내셔널 △Prism Communications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iemens Digital Industries Software △Siemens EDA △Siemens Healthineers △Siemens Korea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동아쏘시오홀딩스 △롯데쇼핑
- △롯데정밀화학 △롯데홈쇼핑 △밀알심장재단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안양도시공사
- △에이치시티 △여수광양항만공사 △유신 △유이드 △유한킴벌리 △이온어스 △인천시설공단
- △인피니티컨설팅 △일동제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종로문화재단 △지속가능발전소
- △충남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전력기술 △한국준법진흥원 △한국중부발전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전 KDN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해양환경공단 △효성첨단소재



본 서밋에서는 반부패 우수기업/기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민간 우수기업 선정은 AI 기반의 ESG 전문 리서치 기관인 '지속가능발전소'의 데이터 (5년간 ESG 성과 및 부패 리스크 검토), KCGS ESG 평가 등을 토대로 선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 부패시책평가와 청렴도 평가, 기재부/행안부 경영평가, 언론보도, ISO 인증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수상 기관 및 기업은 △LS 일렉트릭 △LG 생활건강 △코웨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입니다.

이어진 특별강연은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연사의 방한이 어려워 영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OECD 프랑스 체인(France Chain) 반부패 수석 애널리스트는 '기업 반부패 동인, 매커니즘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본 연구는 30여개국 1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업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매커니즘 도입 이유, 부패 리스크 측정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개발 과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도입의 장애물 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반부패 규정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국 국제투명성기구(TI-UK)의 로시오 파냐구아(Rocio Panagua) 비즈니스 청렴성 총괄은 '정보 공시와 기업 청렴성'을 주제로 발간물 <오픈 비즈니스(Open Business)>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기업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정보 공시 조치를 장려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프랑스 체인 총괄은 강연을 통해 다섯 가지 고위험 분야, 기업 투명성 요구의 주요 동인,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 법적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패 척결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가운데 E(환경적 요인)와 S(사회적 요인)를 개선하는 중요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별세션: 반부패 이슈를 포함한 기업의 ESG 정보 공시 의무화

BIS Summit 2021에서는 “반부패 이슈를 포함한 기업의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관한 특별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세션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이 좌장으로, 한국거래소 강지호 ESG 팀장의 발표 이후 국민연금 원종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강지호 ESG 팀장은 발표를 통해 글로벌 ESG 정보공개 동향 및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언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ESG 각 항목에 대한 관심도가 지배구조(G)에서 사회적 책임(S), 환경(E)의 순서를 거치고, 현재는 ESG 를 모두 합쳐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ESG 정보공개 이니셔티브 중, TCFD 권고안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이는 ESG 에서도 환경(E)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며, EU 비재무정보공시지침(EU Directive, 2014),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 거래소의 거래소 규정, 미국 나스닥, 일본 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자율권고와 작성 실무지침 등 글로벌 ESG 정보공개 규제 동향 설명하며, ESG 정보공개에 있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SG 의 높은 중요성과 관심도에도 불구하고 ESG 정보공개 확산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강지호 팀장은 첫째, 책임투자와의 시너지가 부족하다는 점과 둘째, 공개기준의 비표준화로 인해 어떤 기준 아래 어떤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평가체계가 미정립으로 평가방법과 평가결과 해석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언스에 대해서는 항목 중 “중요성 평가”와 “권고공개지표”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요성 평가는 업종과 업계에 따라 중요 정보가 제 각각이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선별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며, 권고공개지표는 크게 조직, 환경, 사회로 크게 나뉘어져 12 개 항목에 대해 21 개 지표를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고공개지표에서 반부패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항목은 없으나 ‘공정경쟁’ 항목을 통해 반부패를 다룰 수 있고, 권고공개지표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패널 토론

국민연금공단 원종현 투자정책위원장: 한국의 ESG 전망을 국민연금 및 자본시장의 관점으로 볼 때 긍정적이라고 언급하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8 년에 도입되면서 수탁자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고, 수탁자 책임에 충실한 관리자로서 방향성과 방침마련이 ESG 와 부합하면서 ESG 의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ESG 는 사회와 환경, 지배구조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가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향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E 와 S 를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충실하게 충족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지배구조(G)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2020 년까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이 G 에 많이 집중되었다면 2021 년이 ESG 의 본격적인 원년이라고 고려되는 바, 진정한 의미에서 E 와 S 가 투자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ESG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고, 시장이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고, 활용된 정보가 투자로 이어지면서 기업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도 의무화된 지 올해로 3 년차인데 그 정보의 활용성이 낮은 편며, 이에 따라 보다 정형화되고 보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5 가지 제언으로서, 'CEO 의 인식'과 'ESG 경영의 로드맵과 조직체계', 'ESG 로드맵의 이사회 차원의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꼽았습니다. 각 평가 기관의 평가 지표 통일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수 있지만. 평가기관의 평가 주안점, 지표의 활용가능 측면 등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기업은 자사 규모나 성장 단계, 업종에서 어떤 ESG 항목이 중요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이종오 사무국장: ESG 정보공개 의무화 시점을 2030 년으로 잡은 것은, 현재 글로벌 ESG 동향 및 수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배구조 보고서가 2026 년에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6 년까지 E 와 S 관련 정보공개도 의무화해야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대며, 이에 더해 한국거래소의 E 와 S 에 대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내용은 국내 대기업의 수준을 낮게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반부패 이슈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의 ESG 지표는 거래소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지표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최소 유럽연합의 반부패 지표 정도는 포함되어야 하며, 많은 지표가 부담이 된다면 공시 방식을 모범 기준을 따르되, 따르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방식(Comply or explain)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고민해주시기를 주문했습니다.

이은경 실장은, 기업 반부패 강화 및 ESG 내재화를 위해, CEO 의 리더십과 이사회 의 역할이 중요하며(Tone from the top), ESG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방향성에 대한 오늘 세션과 반부패

서약을 통한 기업리더들의 대내외적 의지 선포가 ESG 내재화를 향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세션을 마무리 했습니다.

3. 2021 BIS 헬스케어 반부패 세미나 결과 공유 (3/26)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3월 26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BIS 헬스케어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본 세미나는 헬스케어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헬스케어 분야의 최근 반부패 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준법윤리경영 정착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권춘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에 기반한 협회의 기업 반부패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준법윤리경영은 점점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특히 헬스케어 산업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분야인 만큼, 국내 헬스케어 기업부터 투명성을 확보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 변호사로 <헬스케어 분야 반부패 법제화 강화 기조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강한철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제도가 시행 3년차가 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현재 법안이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중인 것을 고려하면 법안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큰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3가지 주요 시사점 △최근 검경, 국세청 등 규제기관 조사 경향을 반영한 사전 준비 태세 정비 △사전/사후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 및 이를 통한 실효성 제고 △각 부서 간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멘스 헬시니어스 컴플라이언스 전시경 실장은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전시경 실장은 지멘스가 과거 스캔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슈에 대한 솔직하고 투명한 공개, △기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교체, 그리고 △국가 기반 조직 강화 활동 참여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 2010년 세계은행과 함께 지멘스청렴성이니셔티브를 런칭하며 반부패 입법 등에 대한 펀딩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반부패 세미나에서는 문형구 반부패 협력대사 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앞서 발제한 김연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 변호사, 지멘스 헬시니어스 전시경 실장 그리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공정경쟁 팀장, 안진회계법인 황지만 상무가 참석하여 토론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딜로이트코리아 황지만 상무는 2000년도 글로벌 화두로 부상된 Compliance Maturity Model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0년 정부조사 이래 조명 받기 시작했는데, 컴플라이언스는 직원 개인의 행동과 문화에 의해 좌우되기에 달성이 어려우며, 윤리와 준법을 같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공정경쟁팀장은 협회 소개와 더불어 윤리와 반부패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부패 ISO 도입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도입 기업의 윤리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을 들어 도입만큼 중요한 것은 유지이며, 신속한 부패행위 신고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본 세션의 Q&A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딜로이트코리아 황지만 상무는 환경변화로 인해 사업 양상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새로운 리스크가 생겨날 것이라며, 특히 대면 영업 축소, 멀티 채널 마케팅의 부상,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knowledge-based 마케팅으로의 변화 등이 리스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무자 입장에서 탐 매니지먼트에서 의지를 갖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지멘스 헬시니어스 전시경 실장은 “조직구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련 탐매니지먼트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스템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업체가 ISO 인증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팀장은 “인증이 조직 내부 반부패 시스템 구축과 유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며, 이에 “인증은 내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발점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형구 교수는 본 세션을 마무리하며, 생명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태도를 헬스케어 기업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조직 내부의 경쟁우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올해 6월 예정되어 있는 UNGA의 반부패 특별세션에 대해 소개하며, justice system 확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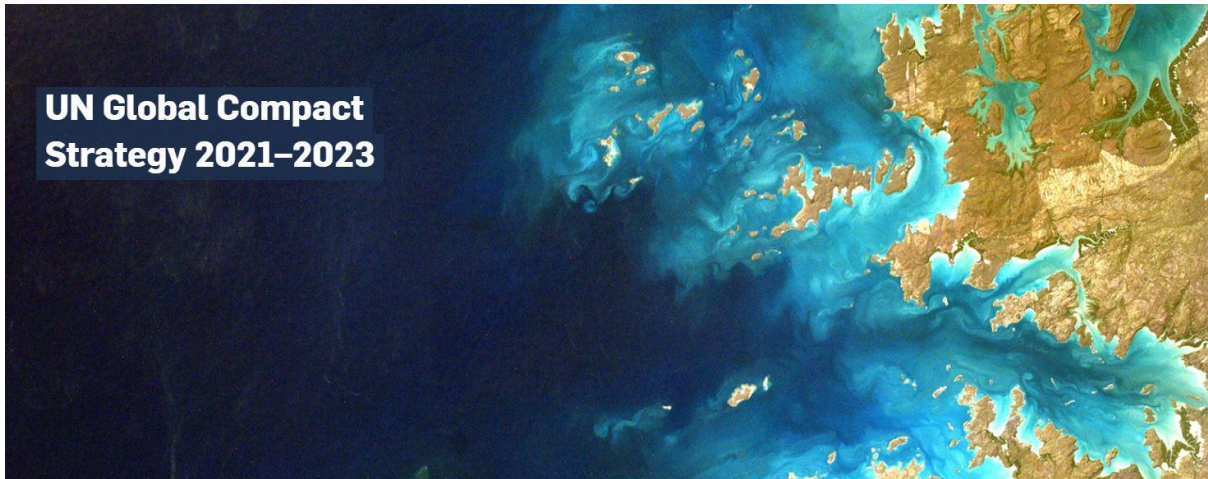


세미나의 말미에는 BIS 팀이 본 세미나를 위해 발간한 <헬스케어 산업 반부패 리포트>가 소개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수란 팀장은 본 리포트가 각 부패 리스크별 유형과 예방 방안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기업 활동을 연구개발, 마케팅, 상품배송/보관, 재무 및 인사 등 가치사슬로 나누어 해당 비즈니스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가장 큰 수출국인 미국, 중국, 독일의 해외 정책과 규제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선샤인 액트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국가별 비교표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며, 함께 수록된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각국 정부의 공공조달 지출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이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에도 여전히 부패 리스크가 큰 산업군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헬스케어 산업과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수 있는 부패 리스크에 대해 파악하고, 강화되고 있는 리베이트 규제 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헬스케어 분야의 준법윤리경영 정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최근 동향과 인사이트들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BIS 는 향후에도 반부패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본부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2021-2023 년도 전략 발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1~2023 년 전략을 통해 다섯 개의 전략을 기반으로 의미 있고 새로운 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UNGC 의 전략과 포부는 UNGC 회원사들의 영향력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UNGC 의 목표는 기업의 10 대 원칙 내재화에 대한 기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에게 중요할 뿐 아니라 동시에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파리 협정을 달성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UNGC는 2021~2023년 전략을 통해 기존의 기반과 성공을 토대로 다섯 개의 전략 변화를 통해 현재의 상황에서 의미 있고 새로운 진전을 이루고자 수립되었습니다. 다섯가지 전략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 있는 기업: UNGC는 회원사들이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갖는데 더 빠르고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 지역 네트워크의 균형 잡힌 성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UNGC의 69개의 지역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들과 관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 주요 영역에서의 측정 가능한 영향: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이끄는 기본 동인인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분야에서의 10대 원칙에 따라 UNGC가 선도하고 구체화할 다섯 가지 이슈 영역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성평등(SDG5),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SDG8), 기후행동(SDG13),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SDG16), 파트너십(SDG17) 등이 포함됩니다.

4. 중소기업의 참여와 행동을 강화: 전 세계 대부분 기업과 고용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가치 사슬에서 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 있는 사업 관행을 발전시키는 고유한 집단적 역할을 합니다. 중소기업은 또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 특히 아프리카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소기업을 겨냥한 프로그램의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와 행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 유엔과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연계: 유엔 국가 공동 분석(UN Common Country Analysis) 및 민간 부문 참여 프로세스에서의 글로벌 및 국가 차원의 더욱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유엔의 집단적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UNGC는 이 전략이 코로나 19 회복 기간 동안 구현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UNGC가 회원사 및 다른 이들과 협력하는 데 있어 팬데믹에서의 복구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건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러한 복구에 있어 비즈니스는 혁신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UNGC는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2. UNGC 산다 오잠보 사무총장,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성명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3월 21일,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아시안 커뮤니티 대상의 끔찍한 폭력 사태들은 인종차별이 거의 모든 나라와 모든 도시에서 거의 매일 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참을 수 없는 증오의 행위는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현상), 가짜뉴스,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OVID-19 팬데믹은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과 차별에 뿌리를 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인종차별을 목격할 때마다 반드시 조건 없이, 망설임 없이, 그리고 거리낌 없이 인종차별을 규탄해야 한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며 저는 “반인종차별의 날 라이브 글로벌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Anti-Racism Day Live Global Digital Experience)에서 UNGC 를 대표하여 모든 기업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참을 수 없는 폭력 행위를 지적하고, 조직적인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UNGC 는 불의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고, 기업들이 지체 없이 취해야 할 구체적이고 반인종주의적인 조치들을 지지합니다. 인종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성명과 정책들은 행동과 투자, 기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UNGC 는 우리가 대표하는 가치와 원칙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 및 배경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무분별한 폭력과 편견의 파장을 겪은 동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인정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하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포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인정하고 규탄해야 합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발언한 바와 같이 인종차별은 뿌리 깊은 악이며, 인종차별은 세대를 초월하고 사회를 오염시키며, 불평등과 억압, 소외를 영구화합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인종차별을 근절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3. 2021 리더스 서밋 (Leaders Summit) 참여 안내



2021 리더스 서밋, 세계 각지에서 모인 비즈니스 리더, 정부 관계자, 시민 사회 지도자, 학계가 참가하는 금년 최대규모 행사

- **일시:** 2020년 6월 15-16일 / 온라인 개최 (26시간)
- **주요 일정:** 기조연설 / 환영 리셉션 / 실시간 질의응답 / 분과 세션 / 네트워킹 / 온라인 전시관 / 온디맨드(On Demand) 영상 세션 등
- **연사:** 추후 공지 예정

UNGC 리더스 서밋(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은 전 세계 수천 명의 비즈니스 리더,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 및 학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논의하는 UNGC의 가장 큰 연례 행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리더스 서밋은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 19 팬데믹, 사회경제적 불평등 악화, 부패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입니다.

UNGC는 본 행사를 통해 함께 지식을 나누고, 진전 상황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며,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을 독려할 것입니다. 전략적 공동노력에 대한 포부를 높이고, 공정성과 탄력성을 갖춘 세상을 재건하려는 수천 명의 글로벌 리더와 SDG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 (Themes)

이번 서밋에서는 다섯가지 주요 이슈와 더불어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노동자 권익, 양질의 일자리, 기후, 반부패,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노력을 촉구합니다.



주요 행사

이번 리더스 서밋에는 디지털 이벤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수천 명의 리더들과 함께 26 시간 동안 진행되는 회의와 지역별 분과 세션, 공연, 전시회 및 상호간 네트워킹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26 시간 동안의 콘텐츠

글로벌 리더들은 총회와 분과세션에서 자신의 인사이트와 SDG 구현 사례 및 공동노력이 주도하는 변화의 방식에 대해 공유할 것입니다. 오늘을 이끄는 유엔과 정부, 기업 및 학계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파빌리온

리더스 서밋 파빌리온(Leaders Summit Pavilion)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파트너들이 SDGs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 관련 영상 공유 및 세션을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네트워킹

미래를 이끄는 수천 명의 지속가능성 리더들과 원격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우리는 협력과 대담한 행동을 통해 엄청난 변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UNGC Leaders Summit 2021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참가 등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UNGC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한국무역보험공사



UNGC 가입: 2010. 9. 4.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92년 설립되었습니다. 공사의 설립 목적은 정부를 대행하여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무역보험제도는 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금융기관이 수출금융을 제공하고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을 간접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이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을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라고도 합니다. '19년도 기준, 무역보험 지원실적은 20,000여개 수출기업 앞 155.8조원이며, 대한민국 수출의 20% 이상이 무역보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무역보험 지원체계 가동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계 비즈니스가 중단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수출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대한한민국 수출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기업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추진단을 발족하면서 무역보험 총력지원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대면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보험청약과 심사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대면 청약과 심사가 가능하게 되어 수출기업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 및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합동으로 코로나 19 무역금융 활용 설명회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는 수출신용보증 만기시점에 무감액을 연장하는 한편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긴급 수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보험료 및 보증료는 할인해주는 등 중소기업 전용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0.4 월말까지 총 11 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했습니다. 코로나 19로 해외 바이어의 비즈니스가 중단되면서 수출오더가 취소되거나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이 기한내에 입금되지 못하는 등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공사는 미국, 중국, EU 등 주력 수출시장 소재 바이어들과 거래하는 한국 수출기업의 수출대금미회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보험 한도 10.5 조원을 감액 없이 연장하는 조치를 즉각 실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마스크 필터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마스크 필터를 즉각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보험 지원 대상 품목에 마스크 필터를 추가하고 7 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역보험 고유의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 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사는 사옥에 입주한 12 개 소상공인이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6 개월간 임대료 30%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였고, 17 개 국내 지사에 자매결연을 맺은 사회복지시설 앞 34 백만원을 기부하는 한편, 전국재해구호협회 앞 20 백만원을 기부하여 대구경북 의료진 앞으로 홍삼 등 응원키트를 전달하는 등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코로나 19 가 고조되기 시작한 '20.1.30 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선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의심증세가 있는 직원에 대해 휴가조치 등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20.2.12 일에는 코로나 19 에 취약한 임신부 직원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부 재택근무를 전격 시행하였고, '20.2.28 일에는 코로나 19 확산방지 및 비상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전사적 비상대응 체계를 관리하는 T/F 를 구성, 발족했습니다.

이후 '20.3.5 부터 '20.5.4 까지는 팀원급 직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재택근무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정보보안 이슈로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이 단절되어 있는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 시스템망을 전격 확대하여 수출고객의 불편함이 없는 재택근무를 완벽히 실시하였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여 정부의 경영평가시 화상회의 센터로 활용되는 한편 국내외 지사간 회의를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방역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로비 출입구에서부터 열화상 카메라 운영을 통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전 부서에 체온계를 배포하고 매일 2 회씩 전직 원에 대한 발열체크를 통해 직원 개인의 건강이상 유무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건물 내 특별방역을 수 차례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자를 매일 발송하여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전사적인 노력으로 코로나 19 관련 단 한 건의 사례도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완벽히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20.5.4 자로 재택근무 체제를 종료하고 전사 정상 근무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19 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활력제고 지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확충지원, 무역보험 문턱 완화 등 코로나 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총력지원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2. [SDGs 솔루션] 유기농 아동복 대여 서비스



VIGGA는 부모가 유기농 아동복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순환 모델을 통해 시간, 비용, 자원 절약에 도움을 줍니다.

VIGGA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모들은 크기가 작아서 맞지 않아질 때 즈음 이를 대신할 아이들의 옷을 정기적으로 배송 받게 됩니다. 월간 이용료에는 아이에게 맞는 사이즈의 유기농 의류 20벌이 포함되며, 아이가 성장해 사이즈가 작아져서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이 VIGGA사로 다시 보내지면, 더 큰 사이즈의 옷이 배송됩니다. 반품된 의류는 착용 및 품질 검사를 받고, 다른 아이에게 전달되기 전에 전문적으로 세탁됩니다.

VIGGA에 따르면, 이러한 대여 모델은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 의류를 새로운 고객에게 전달하고, 닳은 의류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과 협업함으로써 아동복과 관련된 섬유 낭비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점퍼를 단 7번 착용한 후에 너무 작아져서 다락방에 던져두었다면, 이 점퍼가 얼마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었는지가 중요한 걸까요?

비가 스벤슨(Vigga Svensson) -VIGGA사 창립자/최고경영자

왜 VIGGA에 주목해야 할까요?

현재의 의류 소비 모델은 지속불가능한 사용-폐기 행동 순환 주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의 경우,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의류가 금방 작아지고, 계속해서 새 제품을 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VIGGA사는 아동복 대여를 위한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새 의류의 수요를 줄이고 비용 절감을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새 아동복을 구매하는 대신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육아 첫 해 2,100달러까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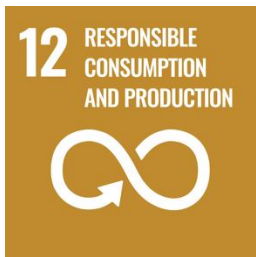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깨끗한 물과 위생



현재까지 VIGGA 는 부모들이 새 의류를 구매하는 대신 의류를 대여하게 함으로써, 540 만 리터 이상의 물을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통해 환경 보존을 실천했습니다.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VIGGA 의 구독 순환 모델은 새로운 의류를 만들기 위한 직물 생산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원자재, 탄소 배출, 화학 물질, 물을 절약합니다.

기후행동



일반적인 직물의 탄소 발자국은 직물의 kg 당 12.5 kg 의 CO₂ 로 추정됩니다. VIGGA 는 옷의 사용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 뉴스

1. LG 화학, 세계 최초 플라스틱 순환 생태계 구축...ESG 모델 만든다



- LG 화학이 국내 혁신 스타트업인 이너보틀(Innerbottle)과 함께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가 완벽하게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에코 플랫폼’ 구축
- 양사가 구축하는 에코 플랫폼은 ‘소재(LG 화학)→ 제품(이너보틀)→ 수거(물류 업체)→ 리사이클(LG 화학·이너보틀)’로 이어지는 구조로 플라스틱 생산, 사용 후 수거, 리사이클까지 망라하는 ESG 비즈니스 모델
- LG 화학의 플라스틱 소재만으로 단일화된 용기를 전용 시스템을 통해 수거하고 재활용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원을 빠르고 완벽하게 100% 재사용할 수 있음
- 양사는 하반기 이너보틀이 생산 중인 화장품 용기부터 해당 플랫폼을 적용하고 이후 식품·의약품 용기 분야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힘

뉴데일리경제

2. CJ 제일제당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출범...ESG 경영 강화



- CJ 제일제당,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를 신설
- 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사항을 발굴·파악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 및 승인
- CJ 제일제당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는 △친환경 에너지 도입 및 탄소중립 달성 △포장재 등 자원 재활용 및 생분해 기술 개발 △인권경영 추진 및 인적 다양성을 고려한 조직문화 조성 △고객 건강과 영양 증진을 위한 제품 개발 △지속가능한 공급망 체계 구축 등을 과제로 다룰 예정

3. 한국거래소, 韓기업 '지배구조 투명공개' 확산 유도



- 한국거래소, 국내 시장에서 ESG·책임투자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1 월 'ESG 자문위원회' 발족
- 작년 말 국내 시장에 적합한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를 마련했으며 기존 ESG 지수에서 더욱 세분화된 ESG 지수 개발 검토 중
- 이외에도 ESG 정보공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높이기 위해 국내외 ESG 정보 집중한 'ESG 정보 허브 (가칭)' 등 ESG 교육 프로그램 확대해 제공할 예정

매일경제

4. 가스공사, 친환경 수소 에너지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 가스공사, 기존 천연가스 사업과 더불어 수소사업 적극 추진, 새로운 성장 발판 마련하여 대한민국 수소 선도 기업으로서 2021 년,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에 나섬
- 또한 수소사업 본부를 설치하여 조직을 확충하였으며, 새로운 수소사업비전 및 전략을 발표할 예정
-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진행한 수소 전담기관 공모에서 ‘수소 유통 전담기관’으로 선정
- 관계자, “가스공사는 그린뉴딜 정책에 호응하여 수소산업이 대한민국 핵심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가스신문

※ UNGC 한국협회 뉴스레터에 소식 공유를 원하는 회원사는 사무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5 곳입니다.

- 만도
- 현대글로벌비스
- 휠라홀딩스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유스임팩트

2. COP/COE 제출회원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 7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SK 가스
- 현대자동차
- JB 금융지주
- 우리은행
- 영원무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 노을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4 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한국남동발전, 한국마사회, 삼덕통상, 한국부동산원, 두산중공업

<1-4 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충북대학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사)내부장애인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유엔한국협회, 이젤, 한국임업진흥원, 국
제옹보합협회

+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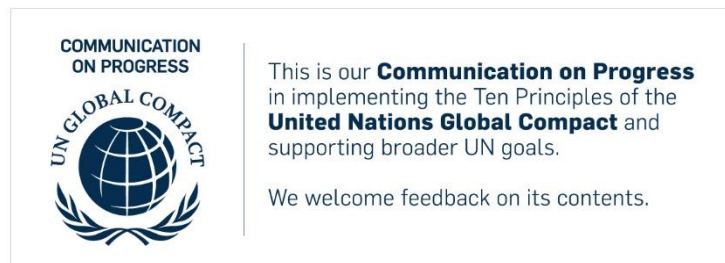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팀장/주임연구원